



10월 2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제50회 한·일 언론간부 세미나에서 양국 언론인들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제50회 한·일 언론간부 세미나 서울서 열려 ‘열띤 토론’

‘바람직한 미래관계 설정을 위한 보도 자세’를 주제로... 양국 언론인 30여 명 참석

한국과 일본의 중견 언론인들이 양국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자세 등을 토론하고 언론계의 친선·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는 일본신문협회(회장 시라이시 코지로)와 공동으로 10월 24일부터 1박 2일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50회 한·일 언론간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일 간 바람직한 미래관계 설정을 위한 양국 언론의 보도 자세’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측에서 조용래 단장(국민일보 편집인) 등 16명이, 일본 측에서 고미 요지 단장(동경신문 논설위원) 등 12명이 참가했다.

(관련기사 3~6면)

세미나에 앞서 참가자들은 2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환영 리셉션을 가졌다. 이하경 편집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국의 언론인들은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섭섭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또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다 못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두 나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 양국은 동북아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유일한 이웃이며, 또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언론인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6면에 계속>

제135차 정부·언론 외래어심의 공동위원회 개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국립국어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35차 정부·언론 외래어심의 공동위원회’가 10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오로클린 엘릭스(오스트레일리아 배우), 잉그리엄 로라 앤(미국 언론인), 홀래드 토머스 스텐리(영국 배우), 마치에레비치 안토니(폴란드 정치

가), 베이날뎀 조르지니오(네덜란드 운동선수) 등 인명 15건, 지명 2건, 일반용어 2건을 심의했다.

1991년부터 2개월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정부·언론 외래어심의 공동위원회는 외국인 인명과 지명, 일반용어를 심의해 통일된 단어의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있다.

임원 칼럼

“계란이라도 사 들고 와야 했는데...”

상대방 얘기만 잘 들어줘도 ‘굿’

편집국장에서 물러나 논설위원으로 일한 지 꼭 1년이 됐다. 2년여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다 책도 읽고, 산책도 다니며 지내니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편집국장을 맡은 직후 외부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마다 “초짜 국장에게 해줄 조언이 뭐 없느냐”고 물었다. 여러 얘기를 종합하니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됐다.

첫째 ‘전화를 모두 받아줄 것’.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상관없이 일단 얘기는 들어주라는 것이었다. 그러기는커녕 전화조차 안 받아주는 국장은 제일 미운 놈이라고 했다. 둘째 ‘뭐라도 표시를 내줄 것’. 홍보하는 사람 입장에선 초판 제목이나 기사를 조금이라도 손질해 주면 그걸로 회사에선 밥값은 한 셈이니 좀 세워주라는 것이다. 요는 다음날 아침 ‘비포(before)’와 ‘애프터(after)’를 만들어 뒷사람에게 보고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높은 사람 만날 때 홍보임원 칭찬해 줄 것’. 사장·부사장 만날 때는 반드시 홍보상무 등이 배석하게 마련이다. 그때 지나가는 말로라도 아무게 상무 참 일 잘한다고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은 절대 그 말뱃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대체로 틀린 얘기도, 어려운 얘기도 아니어서 국장 재임 중 세 가지를 이행하려 노력했다. 오는 전화를 받는 데서 나아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으면 반드시 콜백을 했다. 걸어오는 전화의 상대가 허물없는 사이라면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상대를 놀려먹기도 했다. 한국일보 출신 코오롱그룹의 김승일 전무는 “현존하는 편집국장 중 가장 친절함 국장”이라고 거꾸로 나를



박 래 용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경향신문 논설위원

놀렸다.

초판 제목이나 기사를 수정하는 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먼저 담당 기자와 데스크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그들이 손질에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웠다. 일선 기자들은 내용보다 저쪽에서 연락이 와서 기사에 손을 댔다는 것에 자존심을 상해 하는 것 같았다. 기자들에겐 “원말 궁둥이나 백마 엉덩이나 같은 뜻 아닌가”라고 기사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유연해질 것을 당부했다. 상대의 설명을 듣다보면 팩트가 틀렸던 부분을 바로 잡아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다. 다행히 데스크·기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부하 직원 칭찬은 가장 효과가 있었다. 한 번은 어느 기업의 사장과 오찬이 잡힌 적이 있었는데, 약속을 주고받은 홍보상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점심 자리에서 사장에게 “OOO 상무는 내가 본 홍보쟁이 중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언론계에서도 평이 좋다”고 꼬집을 했다.

사장은 “그러냐”고 웃고 넘겼지만, 그 상무는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자리가 파한 뒤 그 상무는 내 손을 잡고 연신 “감사합니다”고 했다. 이도 자주 써보니 요령이 생겨서 갈수록 스킬이 화려해졌다. 언론사 출신 홍보임원을 두고서는 “우리 언론계로서는 큰 별을 잃었다. 귀하게 쓰시라”고 했다. 그런 말 듣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타사 출신 선·후배만 칭찬할 게 아니라 우리 식구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향신문에서 기업·관가로 옮긴 후배들도 적지 않다. 후배들이 근무하는 곳의 높은 사람을 만날 때는 꼭 거기 있는 아무게 써를 데리고 나와 달라고 했다. 그리고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지갑에서 1만 원을 꺼내 높은 분의 손을 잡고 쥐어주었다. “우리 OOO이 잘 부탁드립니다. 계란 한 꾸러미라도 들고 와야 했는데 빈 손으로 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기업 간부든 고위 관료든 박장대소를 하며 좋아했다. 어떤 이는 “기자에게 돈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고 했다. 낮은 직장에서 일하는 후배들에게 친절은 항상 든든한 언덕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사를 퇴직한 선배들에 대해서도 현직 후배들이 달라붙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친정이 밀고 끌어주는 게 당연시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세상이 여러모로 각박해졌다고 한다. 타사 선배들을 어렵게 알고, 타사 후배들과도 격의없이 지냈던 시절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타사 선·후배들에게서 배운 게 더 많았던 것 같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한다. 세태 탓만 할 게 아니다. 내가 먼저 하면 후배들도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제50회 한·일 언론간부 세미나

■ 한국 측 주제발표

한·일 공존과 미래를 위한 언론의 역할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부정적 한국관(觀) 전파 유감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를 펴냈다. 이 책은 한국에서 ‘협한서’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내용을 훑어보니 전형적인 협한서는 아니었다. 한국이 떠안고 있는 초경쟁 사회 구조와 분단 현실, 북한의 위협을 떠안고 살아가는 한국인의 고달픔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책 제목을 자극적으로 단 것은 사려 깊지 않다.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한국인의 고충을 공감하고 대안을 조언했다면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가까이 하고 싶지만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상종할 수 없는 상대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 일제 식민 지배와 파괴적 한국전쟁, 지금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현실의 트라우마를 떠안고 있다. 게다가 가시적인 북핵 위협과 미·중·일·러 등 4강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한국만이 떠안고 있는 특수성이다. 이런 현실을 두루 고려하지 않고 한국을 평가해선 현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

무토 전 대사는 책에서 “북핵 위기의 시기에 한국인은 친북·반일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뽑고 말았다”면서 “일본은 이러한 한국을 단호한 자세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토 전 대사는 보수·친일 진영의 후보가 선택되고 한·일 간 끈끈한 공조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한국 근대사의 불행과 그에 따라

지금도 겪고 있는 후유증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한국에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했을 것이다. 남의 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주장하는 것은 예단과 독단이 될 수밖에 없다.

무토 전 대사가 이같이 부정적 한국관(觀)의 전도사가 된 것은 2011년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기간 중 주한 일본대사를 역임했다. 그는 대사를 마친 뒤 끊임없이 반한 정서를 부추기는 제목의 책을 써 왔다. 《일·한 대립의 진상》(2015), 《한국의 대오산(大謬算)》(2016)에 이어 이번에는 한층 감정적인 책을 내놓는 데 이르렀다.

무토 전 대사의 한국 인연은 길다. 1993년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시작으로 1996년과 2005, 2007년 공사를 거듭 역임했다. 그가 이같은 부정적 한국관을 쌓아온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첫째는 ‘과거사를 있는 그대로 배워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에 따른 ‘근시안적 역사관’이다.

일본 언론에 바라는 보도 태도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 언론은 일본 사회의 분위기와 정서, 정치적 관점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의 배경을 진지하게 살피지 않고, 정치인들이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상생

하려면 국수주의적,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

이런 점에서 일본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일본 언론의 과거사 화해 노력은 인색해 보인다. 일부 매체는 오히려 양국 관계의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9월 21일 일본 S신문 온라인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이 결여돼 있다’는 말로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적 태도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보의 출처는 물론 기자의 바이 라인도 없는 ‘유령기사’였다.

또 H방송은 8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800만 달러 대북 지원에 대해 ‘평화를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진위 파악에 나서 일본 정부로부터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 또 다른 N방송은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북 지원 설명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만 있었다고 반박했다.

과도한 추측 기사는 추측 대상 국가는 물론 추측하는 언론이 소속된 국가에도 마이너스다. 역사 갈등은 정치인, 역사학자, 일반 국민이 모두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질 때 풀려 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언론은 과거를 덮거나 잊으려 하지 말고, 한국 언론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써야 한·일이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과거를 잊지 않되 공통분모를 넓혀 나가는 유연한 자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일 언론 역시 두 나라가 더욱 교류하고 대화를 활발히 해 나가면서 공통분모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

제50회 한·일 언론간부 세미나

■ 세미나 스케치



10월 2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장시간 이어진 토론을 마치고 전체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세미나에 앞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영 리셉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사진 왼쪽부터 이하경 편집인협회장, 고미 유지 일본 측 단장, 조현 외교부 2차관, 조용래 한국 측 단장)

<1면 '한·일 언론간부 세미나' 계속>

25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한국 측 주제발표를, 야타가이 토시히로 교토통신 편집국 외신부담당 부장이 일본 측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역사 갈등을 넘어 미래를 향한 보도 ▲평창·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양국의 교류 확대 ▲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양국의 보도 태도 등

다양한 정치·문화·체육 분야 현안들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또 양국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 등을 강조하고 한·일 언론이 양국 사이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조용래 한국 측 단장은 “차분함이란 단어를 키워드로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한·일 언론인들이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해주 감사하다”

<한국 측 참가자>

- 조용래(한국 단장) 국민일보 편집인
- 김동호(한국 주제발표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 구성수 CBS 논설위원
- 김대홍 KBS 보도기획부장
- 김범수 한국일보 논설위원
-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국장
- 문기석 중부일보 주필
- 박철원 YTN 편성팀장
- 서의동 경향신문 선임기자
- 성동기 동아일보 국제부 일본데스크
- 윤춘호 SBS 논설위원
- 이춘규 연합뉴스 시니어기자
- 전용우 JTBC 국제부장
-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 차학봉 조선일보 산업1부장
- 황성기 서울신문 논설위원

<일본 측 참가자>

- 고미 유지(일본 단장) 도쿄신문 논설위원
- 야타가이 토시히로(일본 주제발표자) 교토통신 편집국 외신부담당 부장
- 하코다 테츠야
- 아사히신문 도쿄본사 논설위원
- 후세 히로시
- 마이니치신문 도쿄본사 전문편집위원
- 토요우라 주니치
- 요미우리신문 도쿄본사 편집국 국제부 차장
- 사카모토 세이타
- 편집국 차장 겸 국제아시아부장
- 미주누마 케이코
- 산케이신문 도쿄본사 편집국 외신부 차장
- 기타가타 타츠야 시사통신 편집국 외신부장
- 타카노 히로시 NHK 보도국 국제부 부부장
- 히루카와 류슈케
- 홋카이도신문 도쿄주재 논설위원
- 우에다 유이치
- 니시니폰신문 편집국 보도센터국 차장
- 카츠다 히로토
- 일본신문협회 편집제작부 편집담당 주간

고 밝혔다.

일본 측 참가자들은 26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등을 둘러 본 뒤 27일 귀국했다.

<정리=양지운>

◆한미 포럼 참관기

북핵 등 주요 한·미 이슈에 대한 미국의 속내 확인한 값진 연수

여름 더위가 채 가지지 않았던 지난 9월 9일 오전 인천공항 국제선 대합실. 10명의 중년이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대부분이 오랜만의 흥겨운 해의 출장이라 그런지 표정에 설레임이 가득했다. 이들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아시아재단이 마련한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견 언론인들. 유일한 예외는 최성완 주한 미국 대사관 공보관이었다. 최 공보관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이번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지만, 언론인 연수단의 가이드 역할까지 자처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참가자들의 기대감은 공항 미팅 때부터 달아올랐다. 최 공보관이 “미국 대사관이 아니라 아시아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한 덕분에 강사진들 면면이 더욱 화려해졌다”고 밑밥을 깔았기 때문이다.

최 공보관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확인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워싱턴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시작된 첫날 세미나부터 현지 전문가들의 ‘화려한 말 잔치’에 연수단은 매료됐다. 주로 언론사 논설위원들로 구성된 연수단은 가뜰이나 북핵 등 안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한 상황에서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 뿌듯했다.

연수단을 사로잡은 첫 인사는 스타트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었다. 그는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에서 4년간 근무 경력이 있어 한반도 사정을 꿰고 있는 데다 미국 행정부 내부 소식에도 밝기로 정평이 나있는 인사였다. 연수단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한국 보수진영에서 대두되고 있던 전술핵의 한국 배치 요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는 솔루션이 미국엔 없다”고 명



정 혁 훈
매일경제 경제부장

쾌한 답을 제시했다. “한국에 배치할 만한 전술핵 자체가 거의 없는 데다 핵무기를 배치한다 해도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전술핵에 대해서는 다른 싱크탱크 전문가들 견해도 거의 다르지 않았다. 이튿날 만난 마크 만인 의회조사국 연구원은 전술핵의 한국 배치 불가 이유에 대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다. 그는 “장거리 폭격기가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을 지상에 배치한다고 해서 군사적 역량이 추가되는 것은 없다”면서 “전술핵 배치가 정치적 메시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할 수는 있어도 목적 달성 효과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정리했다.

연수단에게 진짜 ‘사이다’ 역할을 한 인물은 셋째 날 등장했다. 바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었다. 당초 예정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대신해 나타난 그는 한·미 관계와 중국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여과없이 토로했다. 다른 외교관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섭섭함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다. “문 대통령이 중국 반응을 염려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 것이 오히려 중국의 사드 보복을 더 강화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됐다. 그건

실수였다.” 중국에 대해서도 송곳 같은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한국이 인내를 해주면 중국이 존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램버트 과장의 이런 태도는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서 활약하는 한국 측 인사들 얘기는 달랐다. 포장하지 않는 그의 직설화법이 오히려 미국 내부 속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연수단 내에서도 외교적 수사를 즐기는 조셉 윤보다 램버트가 온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역시 기자들에겐 ‘빅 마우스’가 최고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 평가도 인상적이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를 역임했던 타미 오버비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한·미 FTA협정은 손 댈 곳이 없는 최고의 협정”이라며 “미국이 한·미 FT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한·미 동맹의 와해를 뜻하는 것으로 중국을 기쁘게 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한·미 FTA가 흔들리면 한·미 간 제도적 차원의 협력이 퇴보하는 최초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스나이더 연구원 말과도 일맥상통했다.

워싱턴에서 주로 외교안보 이슈 중심으로 나흘 간 세미나를 마친 연수단은 워싱턴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암트랙을 타고 3시간 반을 달려 뉴욕 펜 스테이션에 도착했다. 연수단은 곧바로 이동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연수단에 질문 공세를 퍼부었고, 노련한 중견 언론인들의 답변을 경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토론회는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 <9면에 계속>

편·협·광·장

회원 동정



백성일(전북일보 부사장) 전 이사

9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일보 본사에서 전라북도 소방본부·(주)동성과 전북일보 공동 주최로 열린 '전북 119대상'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권혁순(강원일보 논설실장) 이사

9월 7일 강원도 동해시 뉴동해관광 호텔에서 강원일보사와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 주최한 '2017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심규선(동아일보 고문) 전 부회장

9월 1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주최로 열린 '제18회 일한문화교류기금상 시상식'에 참석해 일한문화교류기금상을 수상했다.



김상수(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부회장

9월 20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민일보 본사에서 열린 '2014 강원도민일보 제3차 독자위원회'에 참석해 강원도민일보의 지면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래(국민일보 편집인) 감사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 본사 12층에서 국민일보 주최로 열린 '2016 국민 미래포럼 종합토론'에 참석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김종구(한겨레 편집인) 부회장

9월 23일 전라북도 부안군 석정문화회관에서 신석정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제4회 신석정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수상자를 격려했다.



성병욱(울타리포럼 회장) 고문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유나이티드 아트리움에서 기독교언론인을 중심으로 설립된 울타리포럼 주최로 열린 9월 정기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박보균(중앙일보 대기자) 고문

9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과학대학교에서 고운문화재단이 주최한 '제28회 고운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고운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황호택(동아일보 고문) 고문

10월 1일 전라북도 임실군 사선대광장에서 소충·사선문화제 주최로 열린 '제26회 소충·사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특별상을 받았다.



추은호(YTN 해설위원실장) 감사

10월 10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상록원에서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과 상생과 통일 포럼이 공동 주최한 '리더십 최고위(Leadership AMP) 제7기 입학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남시욱(화정평화재단 이사장) 고문

10월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열린 '제31회 인촌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격려했다.



이영성(한국일보 부사장) 부회장

10월 13일 전북도청에서 한국일보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라북도가 공동 주최한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도시 육성 비전포럼'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SAMSUNG



TV를 켜면 세상의 흐름이 보이는 리더의 공간이 되고



TV를 끄면 영감을 주는 아트 갤러리가 됩니다

공간의 프레임을 바꾸다

THE
FRAME

꺼져 있을 때 작품을 감상하는 아트모드 · 공간에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프레임 디자인

